



10년

완주 구이 수상레저단지 '첫 삽'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음 8월 28일) 제3361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민 100명 중 87명 “자치경찰 이원화 원해”

전북 자경위, '더 안전한 전북' 설문조사 발표

도민 82% “이원화 시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이관을”

스쿨존 속도제한 야간·주말 탄력운영에 80%가 찬성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전북도민 3,221명이 참여한 '더 안전한 전북'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에 대한 의견과 도민이 원하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자치 경찰 이원화 등 총 19개 문항으로 온라인 및 대면 설문조사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민들의 56.7%가 자치경찰 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 45.2%보다 11.5% 증가하는 등 자치 경찰 인지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도민 82.1% “이원화 시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부서를 자치 경찰로 이원화하라”

도민 87%는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이원화 모델보다는 사무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도지사에 이관하는 실질적인 자치 경찰 이원화를 원하고 있으며, 자치 경찰 이원화가 우리 지역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의견도 74.4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이원화 시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 부서를 자치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82.1% 성공적인 이원화를 위해 독립 재원 확보(25.9%)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나 전북 자경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 경찰 이원화 모델과 도민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우선 추진해야

분야별로는 △생활안전 74.4%, △사회적약자 보호 71.6%, △교통안전 72.4%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답변해 전북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으로 △(생활안전)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34.5%), △(사회적약자) 가해자 제법 방지(36.7%) △(교통) 어린이 등·하교 길 노인시설 보행로 등 안전 활동 강화(44.2%)로 나타났다.

주민참여가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는 범죄 취약지 합동 순찰(39.6%),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 활동

(23.5%)으로 도민들도 직접 치안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은 유흥·번화가(40.6%),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37.9%),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 음주운전(29.6%)으로 꼽혔다.

▲스쿨존 속도제한 야간·주말 탄력운영(30~50km) 80% 찬성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30km)를 어린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주말에 상향(30~50km)하는 탄력 운영제도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해, 전북 자경위에서는 내년부터 도경찰청, 시·군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구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 모델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 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레이몬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본사를 방문해 말라 아난드(Mala Anand) 총괄부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전북의 상용차 자율주행실증, 스타트업 허브 구축 등 전북 미래산업에 협력을 제안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관계 모색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활용 유망 스타트업 지원 등

전북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북도의 행정업무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에 협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미국 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해 말라 아난드 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갖

고,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자율주행실증 스타트업 허브 구축 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은 전북도의 협력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커크 아서 전세계 솔루션 리더

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가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현재 여러 규제가 있으나 전형적인 방법을 찾아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 이행하라”

강동화 도의원,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후퇴 비판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1일 제40회 본회의를 통해 점점 축소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의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1회용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서도 지난해 12월 시행을 명시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3년 내 전국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금번 발표로 1회용컵 보증금제 뿐 아니라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런데 환경부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 후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리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예시켜 왔고, 작년 11월 24일 시행해야 했지만 이 역시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정부가 주



도적으로 추진해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발생하는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성과는 포기한 채 무늬만 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의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시행 방침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플라스틱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관련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국체전 전북 첫 금, 배드민턴서

원광대 김하빈·군산대 김윤주, 대학 혼합복식서 우승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배드민턴에서 나왔다.

11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전

남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 관련 일부 종목은 사전경기로 열리고 있는데 가운데 전북은 배드민턴에서 첫 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왔다.

대학부 혼합복식에 출전한 김하빈

(원광대), 김윤주(군산대)는 경북과 충남, 경남을 물리치고 결승전에서 경기를 만나 접전 끝에 스코어 2대 1로 승리, 전북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또한 여자일반부 복식경기에 나선 전북은행도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고, 고등부 경기에 나선 군산고와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팀도 각각 소중합 동메달을 획득했다. /뉴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